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311>

JCCT 2021-8-37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남북한 스포츠

South and North Korean Sport Viewed through the Life History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Sportswoman

최영금*

Young-Geum Choi*

요약 이 연구는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대 초 중반 북한의 스포츠 대표팀 선수였고 탈북해서 남한에서 같은 종목의 국가 대표팀에서 활동했다.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스포츠계를 떠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늘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운동 기술보다 탈북 자체로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중 어떤 체제도 선택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또한 남북 스포츠 교류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며 남한에 적응했다. 스포츠인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적 이슈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스포츠 경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생애는 남북 스포츠를 동시에 경험한 사례로 개인적, 특수성,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통일 시대에 보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미시적 연구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생애사, 탈북여성, 여성스포츠인

Abstract The study looked at a cross section of inter-Korean sports through the liv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The researcher was a north korean national team player in the early and mid-1990s and defected to the north and played for the national team in South Korea. After her retirement, she became a coach, but felt limited and left the sports world. After analyzing the informant's interviews, the prevailing idea was that she was always politically used, and there was a regret that he was spotlighted as a defector rather than an athletic skill. And she was not in a position to choos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was also shown that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could not be developed unless economic conditions were supported. As a stranger,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alienated and adapted to South Korea. Her life is an example of experiencing inter-Korean sports at the same time, and it is believed that she can have personal, specific, and concrete characteristics while showing universality in the upcoming era of unification.

Key words : Life Histor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Sportswomen

*정회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7월 21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일

Received: July 21, 2021 / Revised: July 27, 2021
Accepted: August 1, 2021
*Corresponding Author: poohdudrma@naver.com
Dep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 Korea

I. 서론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남북미간 회담 시기 철도 건설과 관련된 한 회사의 주식은 남북한 경협주로 주목받으면서 한 달 간 106% 상승하기도 했고(뉴스토마토, 2018년 5월 2일), 철도·도로 연결되는 날 신의주 거쳐 파리까지(한겨레, 2018년 5월 1일)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 등의 사건을 겪으며 남북 관계는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통일이라는 대업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있겠으나 시점과 방법에 있어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언제나 부각되어 왔다. 이런 현실적 토대에서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학문적 접근은 매우 긴급하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연구는 탈북 여성 스포츠의 생애를 중심으로 미시적 역사연구를 수행했다. 개인의 인터뷰 연구를 통해 주제보자의 생애에 나타난 스포츠 경험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은 이질적으로 발달한 체육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은 1950년 분단 이후 단절과 일시적 해빙을 경험해왔다. 그동안 남북한이 동시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동시 참가하거나 혹은 단일팀을 이뤄 만들어낸 역사적 승부가 있었다. 특히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한 단일팀의 우승이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남북한 동시 입장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기억을 돌아본다면 어쩌면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포츠가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역사성 있는 문화교류이며 다른 교류보다 더 높은 대중성을 가지면서 동질성을 도모하고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2018년, 성문정)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근래의 사례만 보아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단일팀 논의와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위한 논의는 중단되었고(브리τζ경제, 2016년 11일), 남북한과 러시아가 경제사업, 이산가족 상봉, 관광 모든 남북 교류가 끊겼다(서울신문, 2016년 2월 12일).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인 개인이 느끼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가능성은 어떨까? 이것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연구다. 정권의 일시적인 정책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일회적인 스포츠 교류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스포츠계에서 현실적인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과 다른 환경 속에 놓여있는 북한 스포츠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책적 차원의 거시적 연구는 그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에 힘입어 이제는 미시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북한에서 스포츠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참여자의 남한에서 스포츠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나타난 스포츠 경험을 통해 본 남북 스포츠 교류의 체육사적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은 약 1년간 실시되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집중적인 질문지와 현장노트를 중심으로 한 달에 2번씩 2~3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며 질적연구 방법의 순환적인 흐름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자택이 대부분이었으며, 3번의 여의도 소재 커피전문점, 2회는 주제보자가 입원한 병원이었다. 나머지 6개월은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순환적으로 인터뷰 자체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한편 추가되는 질문을 다시 인터뷰해 심도있는 내용을 구성하려 노력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논리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LeCompte, M. D., Millroy W. L., & Preissle, J., 1992: 19-29)이 있으며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다(최영신, 1999: 3). 또한 개인이 경험한 역사를 기록자가 역사적이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므로 개인의 사적 기록이 아닌 공적 기록이다(조용환, 1999). 게다가 생애사는 지나간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고의 형식이나 특정한 입장

을 주장하는 구술과 다른 점을 지닌다. 시간과 장소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서사적 묘사기법을 중요시한다. 마치 잘 꾸며진 소설 장르처럼 이야기적인 서사성을 지니며 지나간 체험의 사실성을 조직하는 형식이다. 이런 기법의 특성은 개성있고 독특하며 특수한 경험을 가진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개인적 삶을 치밀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남북한 스포츠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사적 연구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조정호(2010)는 생애사 연구방법이 주관성을 보장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 ‘분석’, ‘해석’ 혹은 ‘기술’과 ‘분석 및 해석’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개의 기술 단락과 1개의 분석 및 해석 단락으로 연구 목적을 설정했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대략 15년 전 연구참여자를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며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막연히 탈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연구참여자에게 북한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연구자 역시 민감한 주제라 생각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한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한 선수들에 비해 운동기술이 뛰어난 점을 인상적으로 생각했다. 최근 남북 관계가 해빙이 되는 시점에 “북한은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 이에 연구자도 조심스레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Name (fictitious)	athletic experience	Age	North Korean defector period
Female	A-athlete	More than 20 years	40s	1990s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핵심적 자료로 사용했다. 심층면담 실시할 때 질문지는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과 반구조화된 질문(semistructured question)을 혼합하여 인터뷰 전에 마련했고 연구 초기에는 비구조화된 질문, 연구가 진행될수록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했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 96-100)의 현지조사 4가지 방법인 ‘압축된 설명’, ‘확장된 설명’, 현지

조사일지’를 활용했다. 일지는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비언어적 행동까지 메모했으며 면담과 일지는 바로 그날 정리함을 원칙으로 다시 분석 후에 질문 문항을 작성해 다음 면담에 대비했다. 연구 분석은 질적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taxonomic)으로 상위 질문 문항에서 파생된 하위 질문과 관련 카테고리를 나누어 분석했다.

표 2. 면담분석표 예시

Table 2. Interview Analysis Table

Categories	Detailed category	Concept
Sports experience in North Korea	North Korea's First Introduction to exercise	How to exercise
		Sports team and organizational atmosphere
		The social atmosphere toward female athletes
Sports experience in South Korea	Start of the exercise in South Korea	Differences from North Korea
		Difficulty adapt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III. 결 과

1. 북한의 선수로서 스포츠 경험

연구참여자는 고향의 추운 기후 특성상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스케이트를 탔으며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단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엄마도 운동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잘하게 된 것 같아. 바이올린을 배웠던 적도 있지만 활발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모든 종목에 다 나갈 정도로 잘했었지. 12살 때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거지. 체육시간에 감독 코치가 와서 나한테 기본 동작을 시켜보더니 운동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

연구참여자는 고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가정 환경과 국가적 지원 속에 어려움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로 빙상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를 시작했어. 실내 링크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을 하는 시기는 정해

저였지. 날씨가 풀리는 5월부터는 지상훈련을 8기로 정도하고, 큰 도로를 뛰어서 마을까지 뛰어오는 기초훈련. 길에 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뛰어도 상관없지.”

감독의 눈에 띄어 선수 생활을 시작한 만큼 운동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운동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시절이었다고 한다.

“한 팀에 1조는 국가대표급, 양성조라는 여기로 말하면 소위 2군이 있는데, 나는 2군에 있었지. 근데 짝지어서 연습시킬 때 국가대표 언니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어. 나는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따라가면서 운동했지. 그래서 15세 때 최초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대회를 나가서도 득점이 많았지.”

실외에서 축구장에 나무 펜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물을 뿌려 얼려 운동을 하다보니 추운 날씨와 화장실의 애로사항이었다.

“새벽 5시부터 눈치우기를 시작으로 운동이 시작되는 거지. 중간 중간 빗자루로 눈 쓸면서 운동하고, 야간에는 불 켜놓고 개인운동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날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심해서 운동하기 어렵고, 또 햇빛이 강해서 얼음이 질퍽질퍽하게 녹는 날도 한 번 더 타야한다면 타고. 힘들었지. 화장실도 채래식으로 멀리 있고, 날도 추운데 스케이트 끈 풀고 어찌고 하기 싫어서 참으면서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간다고 훈련 빠지면 다른 사람이 운동이 제대로 안되니까 눈치 보이고, 감독한테 허락받기도 어렵고. 방광염 걸리는 선수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선후배 사이가 남한보다 더 엄격하고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운동을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한다.

“합숙소 생활하는 방에 아궁이에 불 때서 덥혀놓고, 화장실도 채래식인데 다 청소하고. 그게 후배들이 하는 일이고. 운동도 국가를 위해 한다는 생각이 남한보다 더 강하지. 성적을 내기 위해 메달을 따야 된다는 생각도 그렇고. 남한은 개인이 위주고 단체종목이라도 개인이 잘해서 운동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 요즘은 국제대회 우승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체육영웅이면 집, 차 등 모든 것을 다 받고 남한에 비해서 훨씬 더 혜택이 많았어.”

“기숙사 생활하면서 월급도 받고. 평양까지 기차타고 원정 가서 운동했으니까. 평양 가려면 며칠씩 기차타고 이동하는데, 어린 마음에 학교 수업 빠지고 가는 건 즐거웠는데, 겨울에 난방도 안 되니 춥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어쩔 때는 또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했고. 힘들었지.”

북한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거주하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평양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한다.

“평양은 아무나 갈 수가 없거든. 친척이 있어도 말이지. 평양 시내 길을 모르고 지금처럼 핸드폰 같은 연락수단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광을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어. 그래도 몰래 동료들하고 나와서 지하철 역 앞에 노점에서 호떡 같은 것도 사먹고. 평양에서 연필이나 스티커 같은 거 사와서 친구들 나눠주고 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했지. 다른 애들은 구경도 못해본 그런 물건들이었으니까.”

연구참여자는 1990년대 초중반 *****체육단에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다. 북한은 러시아 장비를 거의 사용했고, 중국이 개혁개방은 한 이후에는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평양은 최고의 도시의 명성에 맞게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오히려 아이스링크의 경우 락커룸, 샤워시설 등이 남한의 시설보다 더 수준이 높고, 빙질도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2월 김정일 생일 기념 백두산상 체육대회. 4월은 김일성 생일 기념 만경대상 체육대회, 10월 공화국 창건일을 기념하는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동계와 하계종목을 동시에 다 실시해. 공화국 대회 때 앙고라 털재킷을 부상으로 받아서 엄마 줬던 기억도 있어. 남한은 우승 상품으로 옷 준다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다르지. 그때부터 최초의 여자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

하지만 북한도 남자에 비해 더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여자 종목이 더 비인기이고, 지원도 많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생각이 강해서. 코치나 감독을 여자가 맡는 일이 없어.”

“북한은 고등까지 의무교육이라 개인이 비용이 들지는 않고 학생들이 운동이든 음악이든 필요한 한 물품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다만 제대로 갖추어졌냐는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다고.”

“돈이 많아야 운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건이 학교마다 달라서 나도 바이올린을 하다가 전학을 했더니, 그 학교에는 바이올린 줄이 다 끊어져 있었다고. 대체적으로 김일성 사망 전까지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학교도 붕괴되었다고 봐야지. 학생들이 학교 결석하고 부모님 따라 약초 캐러 다니고 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김정일 때부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거지.”

“북한에는 도 대표팀이 4개 있고, 아마추어팀인 구락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에 비해 남한은 프로 스포츠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자종목은 거의 지원도 없고 또 인기도 없으니 이상한 일이고. 스포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이 종목이 많지.”

남한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기량만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급, 저급 스포츠를 나눌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새롭게 들어오는 스포츠도 한정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 선수들 기량은 199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세해 보였으나, 이후 남한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며 언급했다. 북한은 오히려 운동과 관련한 지원을 부족하지만 국가가 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남한은 비인기종목에 해당하며 관련된 지원을 개인이 잘 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북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 하겠다는 의지가 다르

지. 북한 선수들은 근성과 정신력 면이 강하고,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아마추어지.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옛날 방식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 스포츠 교류를 해왔지만,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고, 비용 문제로 해외 교류를 할 수 없어 고립되기 때문에 마치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형국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남한이 실력이 부족했지만, 꾸준히 유럽이나 해외를 다니면서 전지훈련, 교류를 하고 국제적인 기술, 코치법 등을 배우고 오니 점점 실력이 향상되지만, 북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때문에 고립되고, 교류를 하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 이후, 굳이 이겨져 다 해주면서 실력이 떨어지는 팀하고는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는 거지.”

연구 참여자는 1990년대 후반 가족과 중국으로 건너가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 시점은 20대의 나이였다. 북한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집을 버리고 떠나자는 부모님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이모 집으로 기차를 타고 도망가기도 했었다고 회상했다.

“건너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이지. 한번은 티비를 보는데, 남한이 데모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 방송에서는 남한은 저렇게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한다면서. 어린 나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미국하면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가 티비를 보시면서 “채네들 옷 입은 거나 손목 시계 봐라.” 저게 어려운 애들로 보이냐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 어린 내가 보기에 청재킷 입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보이기는 했어. 우리 엄마도 중국 밀정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현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지.”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남한으로 따지자면 안기부와 같은 국가 업무를 하는 간부였고, 아버지는 평소 ‘세이

코' 시계를 즐겨 착용하셨고 상위계층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중국 측의 지인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차분히 탈출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두고 넘어올 수 있었다 중국 공안에 잡힐 위기도 있었으나 중국 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남한으로 성공적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집을 비우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니까, 내가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망도 보면서 부모님한테 사인도 보내고. 부모님은 중국을 계속 오가면서 준비를 하신거지. 넘어갈 때 물을 건넌 때는 옷이 젖지 않게 했다가 다시 물을 담고 입고. 동생들하고 양쪽에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는데 중국 공안을 딱 만나게 됐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어휴. 중국말을 막 하면서 지나갔지.”

연구참여자는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탈북의 길을 가족과 함께 떠나오게 되었으며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운동을 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만큼 탈북 과정은 괴로운 시간이었으며 남한의 초창기 생활은 차별을 느끼며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집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2. 탈북 이후 스포츠 경험

탈북 이후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는 남한에서는 직장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북한에서는 따로 경제적 지원은 걱정하지 않았기에 운동에 전념했지만, 남한에 내려와서는 국가 대표팀에 속한다고 해서 따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직장에서 7시에 퇴근하고 다시 운동을 가려면 힘들어서 운동을 접어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운동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았어. 하지만 남한에서 팀을 만들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한편 남한으로 정착한 제보자는 문화적, 경제적, 관습적 차이를 느끼며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다른 체제 안에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는 스포츠 활동보다 그녀의 가장 시급하고 중

요한 문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들은 소문으로는 탈북하다 죽었다는 것, 배신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이었고 그럴 때마다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친구와 친척들, 소박한 북한의 고향 사람들도 생각이 났다고 한다.

“티비로 부산아시아경기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는 데 그냥 눈물이 나오고. 내 고향, 친구...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남한에 와서 힘든 점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그녀가 탈북 이후 느낀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북한은 선택의 자유와 언론,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남한은 연애든, 직업이든, 학교든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북한은 돈을 들지 않지만,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 사실 남한이 좋냐, 북한이 더 좋냐. 나는 이견 의미가 없고. 다만 다른 체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봐. 북은 자유는 없지만,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소위 평등의 개념이 있어서, 능력만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반면 남한은 그렇지 않잖아. 능력보다는 다른 조건이 더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남북 스포츠 교류 시에는 난감한 점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국가 체제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국제대회에서 과거의 친구들과 적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가슴 떨리기도 하고...애들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긴장도 되고 너무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북한에 친척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 현실을 달랐다. 북한의 선수들은 그녀를 차갑게 대했고, 말조차 나누지 않았으며 경기장에서는 심한 태클을 걸어와 더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고.

“최선을 다해 뛰고 싶었고, 또 남북한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북한의 친구들, 동료들이 날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큰 욕심은 아니었다. 아직은 체제가 다르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조국을 버리고 간 배신자인데. 시기상조…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연구참여자는 경기 후 하이파이브 순간에도 제외되었다.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북한 친구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지만, 전해 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사우나에서 한 목욕탕 안에서 있었지만, 서로 쳐다만 보고 뭐라고 말을 못했어.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면서 지나가면서 툭툭 시비 거는 식의 대접도 받고.”

예전의 친구들을 만나 인사라도 반갑게 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대일 뿐, 우정이나 화합, 스포츠 정신은 없었다고 한다.

“워낙 당시 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독진도 무조건 출전시키자는 의견이었는데, 결국은 나가서 한 5분 만에 강한 습을 맞고…거의 기어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막 울었지. 그것도 북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언니가…나를 그렇게 무섭게 몰아 부친 것에 대해 몸의 상처가 아프다기 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고.”

연구참여자는 당시 일본의 아사히 TV 기자가 준 휴대폰을 통해 소통을 했는데, 당시에 그 기자는 일본 현지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 늘 조심하고 사람들과 같이 다니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 당시에 어리기도 했고. 그런데 일본의 조총련이라던지 어쨌든 나를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소위 길 가다 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거였지. 그때 어리니까 눈치 보는 것도 없었고, 남한에

서 인터뷰할 때도 그냥 느끼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해 아시안게임에는 표면적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다. 한민족 응원단이 ‘우리의 소원’을 함창하고 북한 선수들도 손을 들어 화합했다. 당시 북한팀 주장 리영순이 “핏줄은 속일 수 없고 평양과 서울에서 유일팀(단일팀)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나 연구제보자는 이런 뉴스나 보도들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건 그냥 정치적인 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게 있을까? 나는 절대 없다고 보고. 언제까지 그냥 퍼주는 식으로 북한에게 끌려가는 자세로는 되는 게 없지. 북한에서 원하는 건 그냥 경제적 지원이고, 교류가 있으면 하다못해 새로 장비를 마련해달라, 이거저거 지원받고 끝나면 그냥 끝이고. 일본하고 중국도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얻을 게 없으니 요즘 말로 손절하는 거고.”

연구제보자는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사례만 봐도 북한은 이미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면 금방 관계를 단절한다고 언급했다.

“답답한 건 남한에서는 자꾸 통일을 위한 어떤 준비과정으로서 스포츠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을 다 끌어 안기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지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야. 급작스런 스포츠 교류보다는 차라리 경제특구를 만든다던가, 부분적인 경제 교류를 해서 사는 것이 점차 나아지면 통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대하면서는 남북의 ‘경계인’으로서 비난과 관심을 받으며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늘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스포츠를 자꾸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지고 선수들을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갑자기 단일팀 구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단일팀을 급작스럽게 만들게 되면, 결국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각자 해왔던 훈련 방식이 있는데, 그걸 깨고 갑자기 선수들을 끼워서 맞추다 보면, 기회가 없어지는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는데,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일 뿐, 실제 통일과 연결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

연구참여자는 스포츠가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 단일팀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 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대회 때 갑자기 단일팀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까지는 각자의 국가로 출전하는 것이 좋지. 여차피 체제와 생각,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은...이제는 거의 없고... 돌아보면 운동을 한지 거의 30년 가까이 얼음판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선후배들이 고생을 해서 밑바닥을 갈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올림픽까지 나가게 됐는데, 유소년, 대학교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북한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오히려 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남한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운동은 자신있고, 은퇴하고 심판하면서도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경기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어. 선수들한테 욱도 듣고 몸싸움도 당하면서도 어쨌든 경기장 안에서는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지. 독하다 소리도 듣고 욱도 먹었지만, 남자 선수들한테도 선생으로 인정받고. 그런데 여자라서 안 되고, 젊고 키 큰 남자로 심판 짝 바꾼다고 하면서 밀려나고. 나도 가서 뒷사람들한테 아부 떨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몇 년 더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 남한 스포츠계는 협회 회장이 바뀌면 다 자기네 사람으로 심고,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사람을 가리니, 발전이 없지.”

연구제보자는 개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

생해봐야 전체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요즘 후배들보면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책임감이나 무게감보다는 개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는 허세만 더 있고, 외국 나가는 걸 무슨 관광하러 나간단 생각하니. 일단 운동이 먼저고, 스포츠 자체로 승부를 걸겠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한심하지.”

연구제보자에게 스포츠는 애증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운동만 생각하고 살았기에 마음을 많이 다쳤고. 스포츠라는데 운동 기술, 가치관, 인간미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니...다시 태어난다면 운동은 안 할 것도 같아. 운동이 남긴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몸이나 아프고. 나의 기술, 실력보다도 늘 정치적 입장에서 주목을 받아야했고, 또 때로는 이용당해야 했고. 부상당하는 것도 사리지 않고 운동을 했고, 좋아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운동을 안 할 거야.”

3. 생애에 나타난 체육사적 의미

면담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유소년 시절 스포츠를 시작해서 국가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평양까지 다녀오는 경험 등을 통해 재미있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탈북하며 남한에 정착하며 생계와 운동을 병행하며 적응하며 혼란스런 시간을 보냈고, 남한 대표팀의 구심점 역할과 정치적 이슈 가운데 있었다. 북한에서는 제한되었던 자유가 있는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탈북으로 인해 차별받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남북이 국제대회에서 만났을 때 정치적으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적대적인 경기 분위기속에 격렬한 태클과 공격을 받는 안타까운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다. 또한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 속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연구제보자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남북 각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 되지 않고는 일회성, 급조하는 단일팀은 정치적인 쇼일 뿐임을 강조했다.

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7년, 탈북 이후 23년을 운동을 했기에 생애에 걸쳐 남한에서 살았던 경험이 양이 양적으로도 많다. 게다가 탈북의 이력이 운동 생활 전반을 차지했고, 그로 인해 스포츠 보다 정치 소재로서 소비되었기에 그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남한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당연히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은 크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지난 운동 경력의 시기는 즐거움과 존재의 의미를 지나 현실적인 체념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으로 거친 운동을 하면서 성과도 냈지만 사실상 남한에서 체육계 현실에 지친 어조로 지나간 생애를 회상했다. 많은 방송 출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지만, 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한 방송 대본 써놓은 걸 앵무새 처럼 읽기 싫다는 것으로 방송과 뉴스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집해 내보내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구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과 경험은 동시대에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경험한 경계인으로서 체제보다는 스포츠 정신,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생애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중적인 시선은 그녀를 정치적 이슈로서 먼저 주목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스포츠 기술로 인정받고 스포츠인으로서 순수하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치열하게 보낸 스포츠인으로서 시간이 정치적 이슈로 묻히고,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운동 경력을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남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체제와 이데올로기로 스포츠를 바라보며 기대했지만, 연구제보자는 오로지 경기장만을 바라볼 뿐, 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선수로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늘 헛발질만 하는 답답한 정책일 뿐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대표팀에 소속이 되었다는 점, 학창시절 북한에서 스포츠 경험이 탈북 이후 남한에서 이어졌다는 측면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큰 제안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자칫 일회성으로만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체제 속에 살아가야할 미래의 통일 시대 스포츠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제보자의 생애사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체육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그동안 스포츠 정책이나 거시적 연구에 또 다른 제안을 하는 필요성에서 수행되었다.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를 통해 스포츠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고 남북 스포츠 교류의 현실을 분석,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북한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체육단에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부유했던 가정 환경과 국가적 지원 속에 어려움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 후반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했으며 남한에서도 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했다. 운동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나 탈북 스포츠인이라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더구나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연구참여자가 남북의 경계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탈북과 정착의 혼란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에서 대표팀 생활과 심판으로 활동했지만, 여성보다는 남자 지도자를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소외되어 운동 경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는 북한과는 다른 문화적, 체제적 환경 속에 이질감과 소외, 이방인으로 중층적인 감정을 느끼며 남한에 적응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의 생애는 남북의 체제의 기억이 동시에 남아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삶은 분명 개인적, 특수성,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통일 시대에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미시적 연구는 현실적 남북 스포츠 교류에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C. K. Kang(2008),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for South-North Korea Sports Interchange

- Activ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2] D. S. Kim(2016). 「Plans for Invigorating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id in Establish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21, No, 2 115-124.
- [3] J. M. Kim(1998). 『North-South Sports Exchanges and Peace Settlem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 [4] C. K. Kim., K. D. Park. and J. H. Kang(2014), 「Life history of Chinese-Korean athletes-Focusing on the life of Yun hak ju」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19, No, 3, 109-127.
- [5] New Tomato Newspaper(2018.05.02.) Article.,
- [6] J. H. MIN(2014). 『Socio-cultura lSignificance on Sports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ince the Korean War』 Chungb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7] K. D. Park(2014), 「An Oral Life History of College Student Athletic Meritocrat: A Mule or An Icebraker」,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19, No 2, 15-25.
- [8] K. D. Park, D. J. Yoon, H. K. Jung(2012), 「A Life History of Mr. Yang, Yoo-Choon who is the Man of Gangwon Judo」,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17, No, 1, 123-135.
- [9] K. D. Park, D. J. Yoon, H. J. Chun(2016), 「The Life History of Song Soon-cheon, the Boxer」,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21, No, 2 95-113.
- [10] J. H. Park(1997), 『A historical study and future directions of sport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11] Bridge Economic Newspape(2016.03.11.) Article.
- [12] Seoul New Newspape(2016.02.12.) Article.
- [13] M. J. Sung(2018.04.),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 『Weazine Cultural tourism』
- [14] Study Participation Interview, 2018.
- [15] Seoul Economic Newspape(2018.06.12.) Article.
- [16] S. K. Lee(2002),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 of the South-North Sports Exchange』 Yo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7] Y. G. Lee(2002), 『The Role of Sports Exchange in Enhancing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Ch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8] Y. H. Cho(1999), 「Trends and Challenges in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anthropology research』, Vol, 2.No, 1, 91-121.
- [19] J. H. Cho(2010),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Saramdaum Education: Focu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 4, No 1, 47-65.
- [20] Y. S. Choi(1999), 「Qualitative data collection: focusing on life history studies. Educational」 『anthropology research』, Vol 2. No 1, 1-22.
- [21] U. Y. Ha, Y. G. Choi(2009), 「The Life history of Ahn Hyang-Mi of the first women's baseball playe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8, No 3, 19-33.
- [22] Hankyoreh Newspape(2018.05.01.) Article.
- [23] Hankyoreh Newspape(2016.04.25.) Article.
- [24] LeCompte, M. D., Millroy W. L., & Preissle, J, (eds.)(1992).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anDiego: Academic Press, Inc.
- [25] Spradley, J. P., H. B. Lee, translation.(1998). 『Participant Observation』, Seoul: Korean textbook corporation.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S1A5B5A07073319)